

중소 건설업체에 활로를...

그간 자신들의 '텃밭처럼 여겼던 중소 규모의 공사마저 대형 업체들에게 빼앗기게 된 중소기업들은
수주와 수익성이 감소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들어 중소 규모의 공사 입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중소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의 존립 기반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자괴 섞인 예상을 하기도 한다.

최 근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설시공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우리의 주택 시공 기술력이 미국의 69%, 고층 빌딩시공력은 미국의 66% 수준을 밑돈다고 한다. 또 미국이 1개 층의 골조 공사에 2~4월, 마무리 공사에 11일이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개 층의 골조 공사에 12.6일, 마무리 공사에 32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접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었다.



박세원
(주)태영 SOG관리팀팀장

과거 1970~80년대 건설 붐이 일어났을 당시, 우리 건설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 기간 시설은 물론 중동 및 해외 시장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됐다. 또 국내 중소 건설업체들도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이며, 국토 곳곳의 개발 현장에서 활약해왔다. 이렇듯 근대 국가 기간 산업을 주도해온 건설 산업의 경쟁력 이요즘 들어 현저히 퇴화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

건설업체 간의 수주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 공사의 발주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어서 건설업체들 간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이젠 수익성 차원이 아닌, 존립과 생존의 양상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에는 발주 방식이 최저가 입찰, 턴키, 대안 입찰, 민자투자사업 등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실 상황은 업체들로 하여금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감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부한 자본과 영업력을 지닌 몇몇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형 공사는 물론, 중소 규모의 공사 입찰에까지 속속 뛰어들고 있다.

그간 자신들의 '텃밭'처럼 여겼던 중소 규모의 공사마저 대형 업체들에게 빼앗기게 된 중소기업들은 수주와 수익성이 감소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들어 중소 규모의 공사 입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중소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의 존립 기반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자괴 섞인 예상을 하기도 한다.

궁여지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대형 업체들과 경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대형 업체들의 기득권과 시장 지배력이라는 '빚장'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공사 입찰에서 규정한 건설업체들의 참가 자격 요건을 중소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하향 완화시켜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또 실질 투입비 수준에 상응하는 설계 보상비를 보장해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사업 및 입찰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턴키 공사, 대안 입찰, 민자투자사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입찰에서 참가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 산업의 기초와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우수 건설업체들을 육성시켜 국가 건설 산업의 토양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대형 업체들도 국내 시장에서의 안주를 벗어나 국제 시장에서의 핵심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건설은 이제 당연히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다시는 해외 선진 시공 기술과의 비교에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설업체는 스스로 원가 절감과 공정 개선,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힘을 쓰고, 정부는 건설 자재의 표준화, 자동화, 기계화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 건설업체가 근간이 되는 건설한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고부가가치 기술력이 확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